

호남 최대 도시재생 '광주역 창업밸리' 본궤도 올랐다

첫 인프라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본격 운영...350억 투입 5층 규모 14일까지 입주기업 모집...기업혁신성장센터·복합허브센터 등 조성 순조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 마중물 사업인 초기창업 지원시설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역 창업밸리 첫 인프라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 (STA-G, 이하 스테이지)을 준공하고, 오는 14일까지 창업기업(40곳)과 지원기관(2곳) 등 입주기업 42곳을 모집한다. '스테이지'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 공사비 350억원이 투입돼 지상 5층(연면적 8950㎡) 규모로 조성됐다.

'스테이지(STA-G)'는 'STARTUP STATION GWANGJU'의 약자로 '창업기업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스테이지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게 기업친화적 입주공간과 기업 성장주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특히 투자전문기관(VC 벤처캐피탈·AC 엑셀러레이터)도 스테이지에 함께 입주해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 예정이다.

'스테이지'는 창업기업 입주실(40개)과 투자 전문기관인 벤처캐피탈(VC), 엑셀러레이터(AC) 등 지원기관 입주실(개별실 2개·공용실)로 구성됐으며, 입주실 전용면적은 45-102㎡로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 카페테리아, 코워킹스페이스, 다목적홀, 회의실, 투자유치 IR(기업설명회) 행사장, 오픈라운지, 옥상정원 등 다양한 공용공간도 갖추고 있다.

스테이지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은 전용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유치 IR 및 VC 밋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기술투자 협업모델 개발(오픈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도 지원받게 된다.

스테이지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지원기관은 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간운영팀 이메일(jyp3844@ccei.kr)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오는 25일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선정된 창업기업과 지원기관은 오는 3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입주 호실 확인 등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대상으로 오는 7일 오후 2시 현장투어도 예정돼 있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스테이지 등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사업'은 광주역 유휴 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2021년 지역기반 제조산업 연계 리빙랩인 '어울림백토리'를 오픈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준공된 주민복합문화복지공간인 '푸른이음센터'도 올 상반기 운영을 앞두고 있다.

특히 2023년 광주역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스테이지 외 광주역 창업밸리 핵심시설도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까지 창업·성장기업 지원시설인 '기업혁신성장센터', 연구개발(R&D) 융복합시설인 '복합허브센터', 사회경제조직 지원시설인 '사회경제혁신타운' 등이 문을 연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광주역 창업시절 통합 운영을 통해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스테이지는 창



광주시 북구 '광주역 창업밸리'의 초기창업 지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3일 준공 절차를 마무리하고, 외관을 드러냈다. 총 공사비 350억원이 투입돼 지상 5층(연면적 8950㎡) 규모로 조성됐으며, 42개 기업·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업기업이 큰 꿈을 펼치는 무대이자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글로벌로 성장한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테이지를 글로벌 혁신창업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10년 연속...전국 67개사 확정

광주일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2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10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3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일간지 27개사와 주간지 40개사 등 모두 67개사

를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지원 대상사는 광주일보를 비롯해 강원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경인일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신문사들이다.

지역신문발전위의 일간지 우선지원 대상사는 제작·취재·판매·광고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 기자채용 및 인사관리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로 창간 73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선도적인 지면쇄신과 경영개선 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신문으로서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기획취재, 지면개선, 시민기자 활용, 연수교육사업, 창의주도형사업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OECD중 '최고' 더 악화된 '노인 빈곤'

2021년 37.6% 2022년 38.1% 2023년 38.2%...여성이 더 심각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였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 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2023년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나뉘보면 남성 31.8%, 여성 43.2%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14.9%)이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9.8%(남성 9.7%, 여성 10.0%)보다 훨씬 높았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대체로 낮아지던 추세였다.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내려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좋아지는 듯하던 노인빈곤율은 2022년 들어서 38.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며 뒷걸음질 치더니 2023년엔 38.2%로 0.1%포인트 더 나빠졌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다른 계층보다 더 심하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0.331)보다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06)가 전체 인구(0.315)보다 낮은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도시가스 공급률 전국 평균 85% 수준으로 높인다

2031년까지 4300억 투입

도·농 에너지 불균형 해소

전남도가 오는 2031년까지 4300억원을 투입, 사군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사군, 도시가스사와 함께 오는 2031년까지 전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률을 전국 평균인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수립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10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63.6%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전국 평균 수준까지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전남의 경우 낮은 인구밀도와 농어촌 지역 특성상 가스 배관 투자가 쉽지 않고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가 자칫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급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남도는 도시가스사의 신규 배관투자를 유도하고 사군의 배관 건설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난 2022년부터 도비로 지원하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17개 사군에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5월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장흥-보성 간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보성읍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돼 약 2000 가

구가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도시가스 배관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읍·면 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읍면 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은 산업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7개 시군, 11개소에서 2024년부터 5년간 총 460억 원 투입으로 약 4700가구가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과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kwangju.co.kr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3차)

당 회사는 2024년 12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 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2월 4일
플랜엔지니어링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106동 205호 (매월동, 매월종합상가)
청산인 김현철

조직변경공고

본 법인은 2025년 1월 23일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로 유한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 법인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가자영농조합법인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45
대표이사 이희정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양 윤재근(791210-1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재진길 10-1, 303호(송림동)
피상속인 양 윤재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나담3009호로 신청하여 2025년 1월 2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2월 4일
• 상속인 : 1. 윤재현(780118-1XXXXXX) 나주시 월정길 17, 502동 401호 (빛가람동, 빛가람145단지)
2. 윤하영(810607-2XXXXXX)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9, 405동 101호(구월동, 덕진빌라)
• 신고기간 : 2025. 2. 4. ~ 2025. 4. 16.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윤재현의 주소

73년을 밝힌 호남신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내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 525-3761	• 신 222-8171
	• 양 571-7659	• 오 256-7601
	• 용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225-6001	• 중 222-9054
	• 중 222-8171	
남구	• 남 673-6836	• 백 051-1833
	• 북 673-6836	• 신 675-6605
	• 진 671-7276	
서구	• 광 382-5788	• 신 372-2352
	• 서 369-1625	• 문 376-7153
	• 치 376-6511	• 용 603-0311
	• 화 369-1625	
광진구	• 문 952-1687	• 월 959-1920
	• 철 973-2900	• 하 955-0451
	• 경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